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중국과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경쟁력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김 홍 하

# 중국과 미국 농수산물 한국시장에서 경쟁력분석

A Competitive Analysis of Chinese and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김 홍 하

# 중국과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경쟁력분석

지도교수 이 제 흥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김홍하

## 김홍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이창재</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유광현</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제홍</u> (인)

202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VI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3
<b>제2장 농수산물 관한 이론적 연구 .....</b>	<b>5</b>
<b>제1절 세계 농수산물 교역현황 .....</b>	<b>5</b>
1. 세계 농수산물 무역의 이론적인 기초 .....	5
2. 세계 농수산물 무역 현황 및 문제 .....	6
3. 한국 농수산물 무역 현황 및 문제 .....	10
<b>제2절 선행연구검토 .....</b>	<b>14</b>
1. 경쟁력 관한 이론 .....	14
2. 선행연구 .....	15
<b>제3장 중국과 미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무역현황</b> .....	<b>20</b>
<b>제1절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무역현황 .....</b>	<b>20</b>

1. 중국 농수산물 무역현황	20
2.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무역현황	23
<b>제2절 미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무역현황</b>	<b>27</b>
1. 미국 농수산물 무역현황	27
2. 미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무역현황	29
<b>제4장 경쟁력 분석</b>	<b>33</b>
제1절 MS (시장점유율)	36
제2절 TSI (무역특화지수)	40
제3절 CAC (국별비교우위)	44
<b>제5장 결론 및 시사점</b>	<b>51</b>
<b>참고문헌</b>	<b>53</b>

## <표 목차>

<표 2-1> 한국 농수산물의 타국 수출액 .....	11
<표 2-2> 한국 농수산물의 타국 수입액 .....	12
<표 3-1>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	23
<표 3-2> 중국 농수산물 대한국 수출입 .....	24
<표 3-3>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 구성 .....	25
<표 3-4> 미국 농수산물 수출입 .....	28
<표 3-5> 미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입 .....	29
<표 3-6> 미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 구성 .....	30
<표 4-1> 한국의 대중국과 대미국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2020년 기준으로 .....	33
<표 4-2> 품목 .....	35
<표 4-3>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MS .....	36
<표 4-4>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MS .....	38
<표 4-5> 중국과 미국의 대한국 MS 비교 .....	40
<표 4-6>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TSI .....	41
<표 4-7>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TSI .....	42
<표 4-8> 중국과 미국의 대한국 TSI 비교 .....	44
<표 4-9>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CAC .....	45
<표 4-10>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CAC .....	47



<표 4-11> 중국과 미국의 대한국 CAC 비교 .....48

<표 4-12> 경쟁력 분석 .....49

## <그림 목차>

<그림 2-1> 2001-2017년 전세계 곡물 무역량은 생산량의 비중 .....	8
<그림 2-2> 한국 농수산물의 타국 수출 비중 .....	11
<그림 2-3> 한국 농수산물의 타국 수입 비중 .....	13
<그림 3-1> 2011-2019년 중국 농산품의 수출입 .....	21
<그림 3-2> 2015-2019년 중국 농산품의 무역적자 및 증가속도 .....	22
<그림 3-3> .....	24
<그림 3-4> .....	30

## ABSTRACT

### A Competitive Analysis of Chinese and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JIN HONGXI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Lee Jehong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world's leading ex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ranking first in the world in 2009 at \$71.6 billion,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Database. In recent years, our agricultural export trade has also developed rapidly. In 2009, China's agricultural export volume was 32.6 billion US dollars,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Brazil, and has become the fourth largest agricultural product exporter in the world.

Korea is also a major ex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U.S. and China. In 2008, China exported 3.2 billion U.S. dollars to Korea, the largest source of agricultural imports from Korea, and the second largest source of agricultural imports from the U.S. at \$3 billion. As Korea's two major sources of agricultural imports,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cannot be avoided. Meanwhile, the upcoming free trad.

As agricultural products of the U.S. and China are similar and competitive in the Korean market, the Korea-U.S. FTA is expected to make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more difficult to export to the Korean market. With the Korea-U.S. FTA coming into effect, Korea will

immediately or gradually abolish most of its U.S.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lace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with U.S. agricultural products, reducing the trade volume of Korea-China agricultural products.

On July 6, 2018, the U.S. government imposed a 25% tariff on \$34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At the same time, China's anti-Japanese measures have begun. The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has begun. The original U.S. tariff on China is estimated to be 50 billion U.S. dollars on 1106 items, and 16 billion U.S. dollars on 288 items were put into effect on July 16, 2018, and 200 billion dollars worth of tariffs will be imposed in September. Eventually, the \$200 billion worth of compensator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U.S.-China agricultural trad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two countries, and examine the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of U.S. an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he paper will be carried out through analysis methods such as market share index(MS), trade-specific index (TSI), and country comparative advantage (CAC), and statistics without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rea Agriculture Ministry, China Commerce Ministry, etc.

Key Words: Agricultural products, competitiveness, market share, trade characteristics index, national advantage index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미 양국은 모두 세계 주요 농수산물 수출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수출국이었으며, 유엔 상품무역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9년 농수산물의 수출 총액은 716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중국 농산물의 수출 총액은 326억 달러로 미국, EU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농수산물 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은 중미 양국의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로서 2008년 중국 농산물의 대한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한국의 최대 농수산물 수입국이며, 미국 농산물의 대한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한국 제2의 농수산물 수입국이다. 한국의 가장 주요한 두 농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중미 양국의 농수산물은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sup>1)</sup>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최대 수출 상대국, 최대 수입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1위 수입국이자 가장 중요한 투자처 중 하나가 됐다. 한미 FTA는 2006년 5월 협상을 시작해 2007년 6월 정식 서명했고 2012년 3월 발효됐다. 한미 FTA는 양국 농수산물 무역장벽의 상당 부분을 감축하고 식품안전검역과 동식물 검역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마련했다. 중미 양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 구조에 대해 일정한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곡물 및 제품, 기름, 종자와 기름이다. 채소와 식물 제품 등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적 경쟁도가 높다. 한미 FTA로 한국에 대한 중국 농수산물의 높은 수출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이 같은 관세 차이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산 농수산물의 가격 우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한국 농수산물 수출 규모가 위축되거나 한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미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농수산물이 없는 데다 소·양고기·돼지고기·가공식품 등이 한국 시장에서 더 도전받고 있어 무역 이동 효과와 무역 대체 효과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미 FTA가 중국산 농수산물의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1) 环球印象(www.zcqtz.com)韩国事业部,2017. 03. 21

2013년 FTA 총액은 2742억 달러로 수교 당시의 55배였다. 농수산물 무역은 한중 경제 무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제2위 수출국이자 제2의 수입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농수산물 수출국이다. 중국의 대한국 제품 수출액은 2003년 25억 6000만 달러에서 2014년 48억 7000만 달러로 늘었고, 한국의 농산물 수입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1-2014년 5억 달러를 돌파한 데 그쳤다. 2014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 농산물은 주로 식음료, 담배, 식물제품과 활동물, 동물제품 등이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중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의 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 무역 방면에서 비교적 뚜렷한 비교 우세를 가지고 있다.

미중 양국의 농수산물은 한국시장에서 유사성과 경쟁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FTA로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은 미국 산 농수산물의 대부분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내 가격 우위는 미국 산 농수산물로 대체해 한중 농수산물의 교역규모가 축소되는 등 교역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농업 생산 대국으로 농수산물 경쟁 우위가 비교적 뚜렷하다. 한국은 동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수입 규모보다 훨씬 크다. 2000-2011년 31억8200만 달러에서 71억50만 달러로 평균 9억4600만 달러의 증가속도를 보인 한미 농수산물 수출은 35억9600만 달러에서 81억3500만 달러로, 수입은 4억1400만 달러에서 9억8500만 달러로 각각 9억6900만 달러와 9.10%의 증가를 보였고, 미국의 대한 농수산물 무역흑자 규모는 31억8200만 달러에서 71%로 증가했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농수산물 무역 현상으로 미국의 농수산물 무역에서 한국의 적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농수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이 중요해진 것은 중국 농수산물 수입시장이 미국에 비해 집중돼 시장 분산화가 덜 됐음을 반영한다.

한중 FTA협상 과정은 상당히 험난했으며, 이는 주요 원인이다. 한국은 농업자원이 강하지 않아 국내 농업 관련 단체와 한국 정부가 농업 전반을 보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물 수출입은 FTA 협상의 관전 포인트였다. 중국의 농업적 강점은 FTA에 따른 농수산물 무역에 대한 한국의 요구와 달리 중국은 농수산물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보수적인 태도로 국내 농수산물 무역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하려 하지 않는다. 한중 FTA가 2004년 이후 12년간의 협상 끝에 2015년 6월에야 체결되는 이유다. 한중 FTA의 농수산물 관련 협약은 한국 농수산물 시장 가격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활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에서 한국은 농수산물 수출입에 대해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펴는 등 농수산물 수출입에 대한 신 한중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sup>2)</sup>

본 논문의 목적은 이론과 실증의 두 가지 측면에서 농수산물 시장 경쟁력에 관한 연구에 일정한 공헌을 하고자 함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문은 농수산물 무역의 기본이론, 국제무역이론 등 관련 분야 내의 이론과 성과를 정리하는 데 기초하여 국제 경쟁력의 일반이론을 농업분야에 도입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무역현황과 결합하여 농수산물 시장경쟁력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간과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본문은 한쪽 면에서는 일정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시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 연구에 대해 제기한 분석 사고 방식의 응용과 검증이다. 따라서 실증연구 역도는 이론과 실증분석 제시의 방법을 채용하여 중국과 미국 농산품의 한국시장 내 무역상황과 경쟁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농업구조조정과 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와 조언을 하고자 한다. 농업구조조정과 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와 조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농수산물무역의 구조를 살펴보고, 양국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며, 미국 농수산물과 중국농수산물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을 검토 해볼 것이다. 논문은 시장점유율지수(MS), 무역특화지수(TSI), 국별비교우위 (CAC)등 분석방법을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문헌과 보고

2) 王声扬, 《韩FTA对中韩农产品进出口贸易影响及相关对策》, 2015

서를 참고하고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청, 한국농림부, 중국상무부, 중국통계청 등 기구들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 제2장 농수산물 관한 이론적 연구

### 제1절 세계 농수산물 교역현황

#### 1. 세계 농수산물 무역의 이론적인 기초

첫째, 비교우위하의 세계농수산물이다. 무역은 비교우위 무역이론에 근거하여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자원의 일정한 전제하에서 더욱 많은 생산품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국제 분업의 이익도 존재하고 있다. 한 나라는 농산품을 통해 자신이 비교우위를 가진 농수산물을 쉽게 수출하고, 자신들이 비교적 열세를 가진 농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다. 둘째, 요소표 이론에 의한 세계 농수산물 무역이다. 요소표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요소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아울러 이 요소 집약적인 농수산물을 수출하여 일정한 경쟁성을 얻어야 한다. 모든 차별성 제품은 특정 소비 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 없을 때 농수산물의 생산량은 시장의 제한제를 받기 때문에 규모 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셋째, 제품주기이론 하에서의 농수산물 무역이다. 제품 라이프사이클 이론은 생산요소 집약적인 성격의 변화가 과거 일정, 및 교역국 간의 비교우위의 이동 추세를 제시하며 기술혁신, 모방, 확산 무역구도에 있어서의 결정작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중국의 발전은 반드시 발전된 국제 기술을 모방하여 자국의 토지, 노동력 혹은 기술 등의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농산품 완제품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규모의 경제 하의 농수산물 무역이다. 규모 경제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가 기타 각 방면에서 모두 완전히 같아 하더라도, 상호 이익 무역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농산품 무역이 시장 판매량을 확대하였으며, 나아가 농업 생산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 생산 평균 원가를 낮추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여 각국의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생산품의 종류 증가에 있어 모두 복리 후생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3)

3) 苏格, 彭欢, 吴国方《世界农产品贸易与中国农产品贸易现状分析》, 2019.10

세계농수산물무역의 총체적인 특징이다. 총량증가,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끊임없이 감소하였다; 농수산물 무역의 국가 혹은 지역간 발전 불균형이다; 농수산물 무역의 상품구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식량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농수산물 무역에서의 보호주의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농산품 가격은 공산품 가격과 비교하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산품 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현저해지고 있다.;동식물 검역 국제협약이 나날이 완벽해지고 있다.

세계농업발전 추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첨단기술은 농업발전 방향을 주도하고, 생산 수준은 진일보하여 생물기술 (Biotechnology)과 정밀농업 (Precision Agriculture)으로 대표되는 농업 첨단기술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비록 생물기술 응용 십여 년 동안이나 적지 않은 생물기술 제품은 아직 연구 개발, 시험 단계에 있으며 상품화 발전은 위험과 곡절이 가득하지만 산업화 추세는 돌이킬 수 없다. 둘째, 농수산물의 생산은 다양화, 무해화, 생산방식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사람들의 생활수준, 생활의 질이 끊임없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품을 포함한 생활기본물질의 다양화를 요구한다. 신세기 인류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무해한 음식을 먹을 것을 요구하여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화학제품의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였다. 셋째, 농업 과학 기술의 기여율이 증가하여 농업은 "비 농업화"를 실현한다. 현재 선진국의 농업 과학 기술 공헌율은 이미 60-80%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30-40%에 이른다.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는 농업 과학 기술의 공헌율이 비교적 크게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농업 노동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 노동력이 대량으로 이동하였다. 농민이 개농에서 비 농인구로 바뀌다. 농업 노동 생산성 향상의 기초 위에 이러한 전환이 빠를수록 농업 현대화와 농민 소득 향상에 더욱 이롭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전화는 현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요구이다.<sup>4)</sup>

## 2. 세계 농수산물 무역 현황 및 문제

농수산물이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 발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업 부문에도 관련된다. 70년대 이래로 세계 농산품 무역

4) 唐杰 等《全球农业发展现状和趋势》,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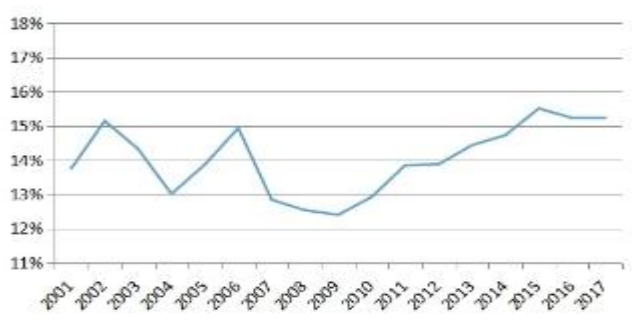
의 발전 속도는 비록 다소 느리지만, 세계 수출 무역 총액 중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소 감소하였지만, 세계 생산품의 수출 무역액은 여전히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 농산품 무역 상황의 변화는 인구 증가,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생활 습관과 식품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전체 사회 생산의 발전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5)</sup> 이후의 재료 기술 진보는 공업 생산을 신속하게 증발시켜 공산품의 화계 무역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인구 증가가 농산품의 무역을 증가시키지만, 농산품의 세계 무역에서의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또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업생산과 무역이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 농수산물의 무역 발전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 농가는 농산품 무역에서 발전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것은 여전히 식량과 식용유의 식품일 것이며 농산품 원료 무역은 비교적 느릴 것이라고 예측된다. 선진국은 계속 농산품 무역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식량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지불 능력이 부족하여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다.

중국의 농수산물 생산량도 매년 증가해 현재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으로 땅이 넓고 인구가 희박한 데다 모두 기계화로 일하는데다 기후가 농작물에 잘 맞아 떨어져 농수산물 수출이 850억 달러 안팎으로 2위를 차지했다. 농수산물 수출국 3위는 브라질이다. 사실 브라질은 축구공만이 아니라 날씨도 좋아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매년 7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액을 올리는 슈퍼 농업국이다. 4위는 아르헨티나로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위주의 대국이었으며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제2의 농업국으로 꼽히며 농수산물 수출액도 500억 달러 정도로 대단했다.

---

5) David Hallam,《中国农业信息》, 2008, 007卷

<그림 2-1> 2001-2017년 전세계 곡물 무역량은 생산량의 비중



출처: 中国农业部

<표 2-1>에 의하여 세계 곡물 등 주요 농수산물의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 생산물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은 비교적 낮고 안정적이어서 2001-2016년 12.1% - 15.3%를 유지한 것은 세계 식량공급이 각국의 국내생산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곡물제품은 밀의 2017-2018년도 세계 교역량이 17710만 톤으로 전 세계 총생산량의 23.3%, 쌀 교역량이 4830만 톤으로 9.5%, 옥수수 교역량이 15230만 톤으로 14.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콩은 41.3%, 목화는 35.4%, 설탕은 33.2%의 무역량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 교역량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주요 농수산물 수출시장도 집중돼 있다. 2017년 전 세계 쌀 수출의 77%는 인도·베트남·미국·파키스탄·미얀마, 밀의 50.9%는 러시아·호주·캐나다·아르헨티나·미국, 옥수수 68.3%는 아르헨티나·미국·브라질·우크라이나·러시아, 콩 91.5%는 브라질·미국·아르헨티나·파라과이·캐나다에서 수출됐다. 면화·설탕의 수출시장 집중도도 높아 60%가 넘는 수출이 세계 5대 수출시장에 집중돼 있다.

지구 기후 변화,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 농수산물의 자본화 등 비전통적 요소가 세계 농수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식량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며 국제 곡물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홍수와 침수

재해, 가뭄, 극심한 기온과 병충해 증가를 초래하여 농업 생산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왔다. 벨기에 루벤대 재해역학연구센터(CRED)에 따르면 2000-2018년 전 세계 자연재해 건수는 7717건으로 홍수, 가뭄, 극한 기온 등 3756건, 병충해 19건으로 빈도가 크게 늘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은 농수산물 수요 공간을 대폭 넓히고 농수산물 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농수산물 가격을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게 하였다. OECD-FAO 농업 전망<sup>6)</sup> 2018-2027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옥수수의 16.6%, 식물성 기름 12.9%, 사탕수수의 18.4%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됐다. 투기자본도 전 세계 농수산물 가격 변동의 중요한 견인차가 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추진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교역 범위는 이미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금융투기가 농수산물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두드러지면서 2008년 이후 전 세계 곡물가격의 3차례 대규모 상승과 글로벌 식량 위기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보호주의가 팽배해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공업선진국 상호간에 한편으로는 수입에 대해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상품들이 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 보조금을 채택하고, 수출신용보증 등을 제공하여 전력을 다해 상대방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은 갈수록 가혹해져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공업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발도상국에 위기를 전가하여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상품들이 선진국의 시장에 진입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비중이 날로 떨어지게 되며, 동시에 선진국들은 원료 가격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초급 품 및 공산품의 가격격차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출수입은 격감하고, 채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 농산품 무역의 다른 존재도 확대되고 있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호한 국제 생산 환경이 필요한 것 외에 새로운 식량과 농업 생산품 무역 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은 반드시 동등한 파트너로 출현해야 한다. 유엔 식량기구의 의견에

6) 联合国粮食及农业组织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따르면, 그 기본내용은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1) 선진국의 농업보호주의를 감소시키고 국내 식량과 기타 농산품 시장을 점차적으로 통제적으로 개방하며, (2) 개발도상국의 농업상품 수출을 장려한다. 현재 이미 효력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효될 예정인 개발도상국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특별 안배, 예를 들면 UN무역개발회의 보편적인 우대가격제, 상품공동기금, 유럽경제공동체 로메 협정과 수출소득안정화 계획 등 광범위한 실행, (3)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농수산물과 생산 필수품 무역을 확대하며, (4) 정선은 현재 북미 공급 곡물 구도에 의존하고 있다. UN무역개발회의, 관세무역 총협정과 양국농업기구의 일반기구 아래에 개별 상품 혹은 한 세트의 상품 협상기구를 설치하여 이 방면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sup>7)</sup>

### 3. 한국 농수산물 무역 현황 및 문제

한국은 중국의 쌀, 밀, 새우 등 농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다. 2008년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농수산물은 31억7000만 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중국산 농수산물 수출액의 비중은 7.9%였다. 중국의 한국에서 채소 수출량은 48만 톤이다.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다. 수출은 2억8000만 달러로 2007년과 같았다. 한국 과일로 1만9000톤을 수출한다. 전년 동기 대비 17.5% 하락했다. 수출액은 1806만5000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했다. 2009년 1~12월 중국의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28억3000만 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했다. 중국은 한국에 동어 및 동어회를 16만2000톤 수출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콩은 16만9000톤을 수출한다.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다. 쌀을 17만 톤 수출하다.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냉동 채소를 21만5000 톤 수출하다.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양모를 1.1만 톤 수출하다. 전년 동기대비 10퍼센트 증가하다. 신선한 채소를 14.1만 톤 수출하다.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했다.<sup>8)</sup>

7) <https://www.ixueshu.com>

8) 《商品与质量学术观察》, 2011, 12期

<표 2-1>한국 농수산물의 수출액

(단위: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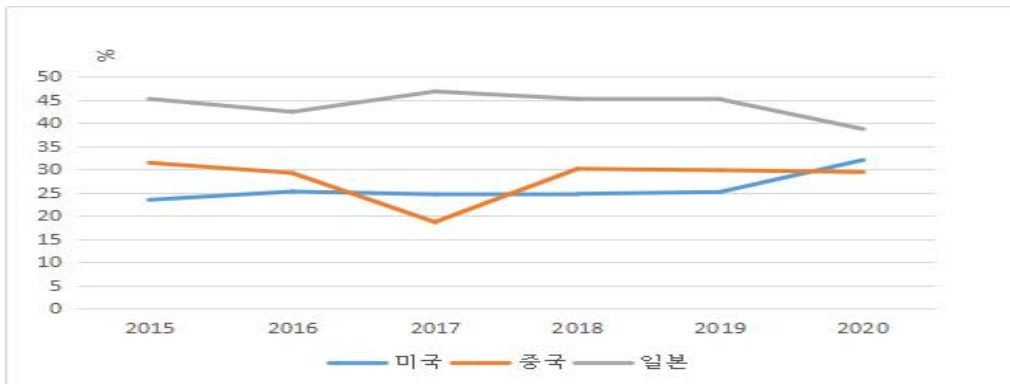
년	미국	중국	일본	전체
2015	558.1	749.1	1078.6	5220.6
2016	632.5	730.6	1062.8	5581.2
2017	640.5	744	1218.7	6046.6
2018	673.8	823.3	1234.1	5984.6
2019	739.1	878.9	1331.7	6146.3
2020	1036.8	953.3	1254.6	6675.2

출처: 농식품수출정보

<표 2-1>에 의하여 한국의 미국으로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억5800만 달러에서 10억37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중국으로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억4910만 달러에서 9억533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일본으로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억7860만 달러에서 13억317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3억3170만 달러에서 12억5460만 달러로 하락하였다. 한국의 전세계로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2억2060만 달러에서 66억752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림 2-2>한국 농수산물의 수출액 비중

(단위:%)



한국은 미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 비중이 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 비중이 2017년에 18. 6%로 최저였다가 2018년의 30. 1%로 증가했다. 한국의 농수산물의 일본에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표 2-2>한국 농수산물의 수입액

(단위:백만 달러)

년	미국	중국	일본	전체
2015	4408.1	2439.8	320.8	17901.6
2016	4349.1	2532.2	376.7	17666.4
2017	4887	2554	478.6	18593.5
2018	5849	2689.4	495.3	19903.2
2019	5312.6	2721.8	400	19876
2020	5401.9	2908.2	282.5	206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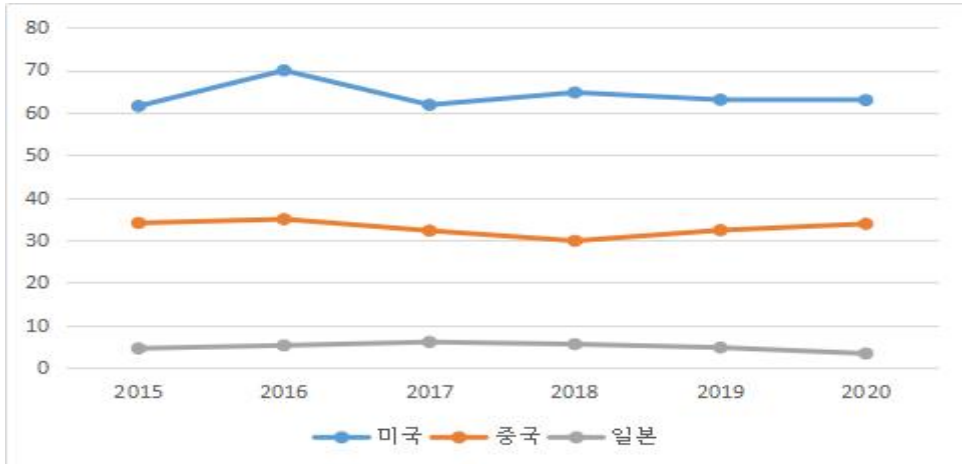
출처:농식품수출정보

<표 2-2>에 의하여 한국 농수산물의 미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액을 43.49억 달러에 58.49억 달러로 15억 달러에 증가했다. 한국 농수산물의 중국으로 수입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 농수산물의 일본으로 수입액은 2018 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 농수산물의 전 세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액을 179.016억 달러에 206.694억 달러로 15억 달러에 증가했다.

<그림 2-3>한국 농수산물의 수입액 비중

(단위:%)





<그림 2-3>에 의하여 한국 농수산물의 미국 수입액 비중은 2016 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 농수산물의 미국 수입액 비중은 2018 년에 29.8%로 최저하였다가 2020 년에 33.8%로 증가했다. 한국 농수산물의 미국 수입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다.

한국의 농산물 무역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한국은 농업 생산 기반이 약하다. 한국의 지형은 비교적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분포가 고르지 않다. 평원이 비교적 적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이 비교적 적다. 한국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농산물 무역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한국은 농업 생산 기반이 약하다. 한국의 지형은 비교적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분포가 고르지 않다. 평원이 비교적 적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이 비교적 적다. 한국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 한국의 정치적 이유이다. 한국 정부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농민과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일련의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상의 고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정치상의 필요도 있다. 국제 세계화의 배경에서 한국의 공업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한국 농민들은 농업 분야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 제2절 선행연구검토

### 1. 경쟁력 관한 이론

경쟁력 문제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국제 경제학의 무역 이론에서 무역 패턴의 해석을 읽어야 한다. 이것은 비교우위이론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무역과 산업정책을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국가 간 시장에서의 경쟁은 원래부터 무역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품 경쟁력의 형성은 물론 미시적인 원인이 있지만, 국제무역이론의 진전은 경쟁력 연구의 광범위한 이론적 배경이다. 기업과 산업은 경쟁력 문제의 미시적 부문이다. 거시경제학과 무역이론은 전부 기업과 산업만 운영하는 거시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같은 환경 하에서 서로 다른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쟁 능력을 보이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동종, 모종의 산업이 국제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는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과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의 산업 발전 상황과 경쟁력 상황은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경쟁 우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경쟁력이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연구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기업 전략 관리와 산업 조직 이론이라는 두 가지 큰 도구를 빌려야 한다. 농수산물 경쟁력은 사실 농업 내부에서 서로 다른 초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분업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혹은 서로 다른 농수산물은 해당 의류 제품의 생산, 집중, 가공, 운송, 판매 등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조직과 이들 사이의 연관성이며, 농수산물 시장 경쟁력은 조직과 연계된 효율을 시에서 나타나다.

농업 경쟁력은 시장지향적인 개념으로, 시장점유율 지표는 농업이나 모 제품의 경쟁력을 실현하는 상태를 직접 반영한다. 시장 점유율을 심층 분석해 시장 점유율 분석에 기반한 경쟁력 평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구체적인 추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령 시장 경쟁력은 경쟁 우위와 생산 규모의 함수, 즉 한 경제국(국가, 지역, 업계, 기업) 시장 경쟁력의 강약은 그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규모의 크기와 경쟁 우위의 고저에 달려 있다.

이미 1985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한 나라의 기업이 국내외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품질과 저비용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국제

경쟁력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199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과 세계경제포럼은 국제경쟁력의 개념을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 생산, 판매하는 능력은 국내외 경쟁사보다 가격과 비가격의 특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정의했다.<sup>9)</sup>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한 나라가 기업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국민이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국제 경쟁력으로 꼽았다. 이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연구는 국가가 제공하는 환경과 부의 창출 과정 간의 관계를 중시하며, 경제 운영,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의 4대 요소의 교호작용이 부를 창출하는 총체적 환경을 결정한다고 여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sup>10)</sup>는 국제경쟁력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국제시장의 검증기준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경쟁 참여 주체에 따라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기업경쟁력, 제품경쟁력으로 나뉜다. 경쟁력의 주체에 따라 이론적 정의, 개념적 내포와 외연, 측도 지표가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경쟁력을 거시경쟁력, 미시경쟁력, 구조경쟁력으로 분류한다. 거시적 경쟁력은 국가 법규·교육·기술적 차원의 경쟁력을 말하며, 미시적 경쟁력은 기업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과 이익증대 관련 경쟁력, 구조 경쟁력이란 기술 인프라, 투자 구조, 생산 유형, 외부성 등과 관련된 경쟁력을 말한다.

## 2. 선행연구

중미 양국의 농산품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크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 결과에 따르면, 일부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장점유율과 양적 비

9) 中国社会科学网 <http://m.cssn.cn>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화가 가져올 경제, 사회, 정부 통치 등의 도전에 공동 대처하고 세계화가 가져올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30여 개 시장경제 국가로 구성된 정부 간 국제경제기구다. 1961년 창설돼 현재 회원국 34개국, 본부는 파리에 있다.

교우위지수를 통해 중국의 수산물, 채소, 과일 등 소수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경쟁력은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한국 농산품의 한국 시장 경쟁력은 미국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다음은 참고한 문헌들이다.

wef와 imd는 1994년 9월 공동으로 발표한 '1994년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 국제경쟁력의 정의와 평가기준을 수정했다."국제 경쟁력은 한 나라나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더 많은 부를 균형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은 경쟁력 자산과 경쟁력 과정의 통합이다. 자산은 고유한(자연자원의 경우) 또는 창조된(인프라의 경우)이고, 과정은 자산을 경제적 결과(만든 경우)로 전환한 뒤 국제화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측정된 결과) 국제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국제 경쟁력은 다음 공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sup>11)</sup>

국제경쟁력=경쟁력 자산×경쟁력 과정

1817년 David Ricardo는 비교우위 이론에서 국제무역의 기초는 생산기술의 상대적 차별과 그에 따른 상대적 원가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나라마다 '양리는 중하게, 양자는 가볍게'라는 원칙에 따라 '비교적 우위'를 가진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수출하고 '비교적 열세'를 가진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이 이론에서 리카도는 생산기술의 차별성을 통해 기능직 노동자가 국제무역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sup>12)</sup>

어명근 외(2003)는 한·중·일 3국의 농업구조를 비교 분석을 통해 3국의 농업은 경쟁이 보완관계가 있지만 토지 집약적 농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 상호보완적 교역 형태로 협력할 수 있다.한·중·일 3국 농업은 토지 절약형 소농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산요소의 상대적 존재 비율은 다르다. 만약 한국과 일본 토지 생산성, 자본의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았고 중국 3국 상호 보완적 역할을 했다. 농업을 발휘할 것 중국 노동 집약적 제품 생산에 집중적으로 일본 제품을 집중적으로 한국 자본 집약적 생

11) 郝华, 林秀梅, “경제 시각”, 제000권 제004호, 2012, P79-80

12)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817

산은 생산 제품을 집중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는 집약적인 3국 세 도움이 되었다. 말 하지만 농수산물 대비 가격이 바뀌면 요소 집약도 및 생산성 순서도 바뀌고 보완관계도 바뀐다. 무역결합도지수(TII)와 GL지수를 분석한 결과 3국은 농업구조가 유사하고 경쟁성이 강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상보적 성격이 강해 협력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농수산물 교역 관계는 국가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의 농업구조 변화를 예측해 향후 역내 농업협력 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한다.<sup>13)</sup>

박준근(2009)은 중국의 농업 현황, 농수산물 수출정책 및 교역현황을 개괄하고 농수산물 1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쟁력지수(SCI)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품목이 77%로 한중간 경쟁력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김승규(2009)는 한·중 농수산물 품목별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곡물류,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응방안과 함께 농업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FTA로 타격을 입은 취약산업을 보상하는 대책만 마련하면 된다.<sup>15)</sup>

유병서(1993)는 밀, 옥수수, 대두 등의 수입량, 국내 생산량, 국제가격, 환율, 1인당 GDP 등의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수입수요 탄성치를 비교하여 두 기간의 수입구조 변화 여부를 분석하였다.<sup>16)</sup>

안병일(2009)은 2000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한·중·일 농수산물 교역

13) 어명근,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수산물 교역구조”, 2003

14) 박준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pp.379 - 381

15) 김승규,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대책”, 2008

16) 유병서, 「농업발전론」, 1993, 08

동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입장에서 화훼류와 인삼이 대일본 수출의 비중이 높고, 대중국 수출에서는 화훼류, 과일류, 인삼 등을 중요한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최세균 외(2008)는 GTAP 모형으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은 각각 7.6%, 9.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일본의 쌀 수입 증가는 각각 8,200만 달러,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sup>17)</sup>

임형백 외(2007)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식 정책에서 농업의 경쟁력강화, 수출지향형 농업의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sup>18)</sup>

최세균, 박시환(2001년)은 한중 농수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논문에서 한국의 대중 농수산물 수출이 가공식품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유통구조 개선에 따라 과수 등 신선농수산물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 추세로 볼 때 양국의 농수산물 경쟁력 차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환율, 양국 물가지수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중국의 농수산물 생산비 급등을 이용해 품목별 한국 국내 생산비 절감을 적극 촉진하고 경쟁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19)</sup>

남국현·이천국(2018)는 무역결합도지수, 그루벨-로이드 지수(GL지수),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한·중·일 농수산물 경쟁력과 한·중 FTA 농수산물 교역량증가효과를 입증했다.<sup>20)</sup>

보수원·심재회(2009년)는 대중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중 FTA 등의 형

17) 안병일, 「FTA 영향분석에 대한 표준 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 2009. 3

18) 임형백, 농촌지도와 개발, 2007, 제14권 제1호, P29 - 57

18) 최세균, 박시환,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2001, 11

19) 남국현·이천국, 한·중·일 농수산물 경쟁력과 한·중 FTA 농수산물 교역량증가 효과, 2018, P71-83

태를 분석해 농수산물 자유무역이 이뤄지면 한국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했다. 시장점유율 지수,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해 한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예상대로 취약하고, 한국 식당의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이 중국산 농수산물과 채소라는 점을 분석해 중국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비교·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한중 FTA가 한국 제조업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지만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수산물 신선도가 용이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sup>21)</sup>

본문은 중국 농산품의 한국 시장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인 건의를 할 것이다.

---

21) 모수원·심재희, 「한국 농수산물의 대중 경쟁력」, 『산업경제연구』, Vol.22 No.2, 2009, pp. 621-635

## 제3장 중국과 미국 농수산물 대한민국 무역현황

### 제1절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무역 현황

#### 1. 중국 농수산물 무역현황

중국 토지의 총면적은 약 960만km<sup>2</sup>로 세계 토지의 약 7.3%를 차지한다. 소련·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다. 경지 면적은 세계 경지 총면적의 약 7%다. 소련 미국 인도에 이어 4위다. 임야 면적은 17억 3000만 무로 세계 산림 총면적의 3%를 차지한다. 소련·브라질·캐나다·미국에 이어 5위다. 초원의 면적은 47억9000만 무이며, 이 중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3억7000만 무이다. 호주·소련에 이어 3위다. 초산초파는 약 7억 2000만 무에 이른다. 담수면은 2억5000만 무이며 이 중 약 7500만 무를 양식할 수 있다. 간석지 면적은 약 2997만 무이다.

농업 자원의 이점이 있는 데다 농수산물 생산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약 20~30%를 차지한다. 이 같은 가격 경쟁력 우위는 1990년대 이후 중국산 농수산물의 대한(對韓)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기초적 요소이다.

중국의 농수산물 교역 현황을 보면 농수산물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5년 중국 농 제품 수입이 처음으로 수출을 앞질렀다. 농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경지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적게는 식량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경제무역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차 무역 상대국의 제1차 수출처이자 제1차 수입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차 무역 상대국이자 제4차 수출시장, 제2차 수입국이 되었다. 전체 교역에서 나타난 고속 성장과 달리 한중 양국의 농수산물 교역은 온화하게 변동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농수산물 생산대국이자 소비대국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농수산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세계적으로 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농수산물 무역은 국가별, 문화별, 민족별 다방면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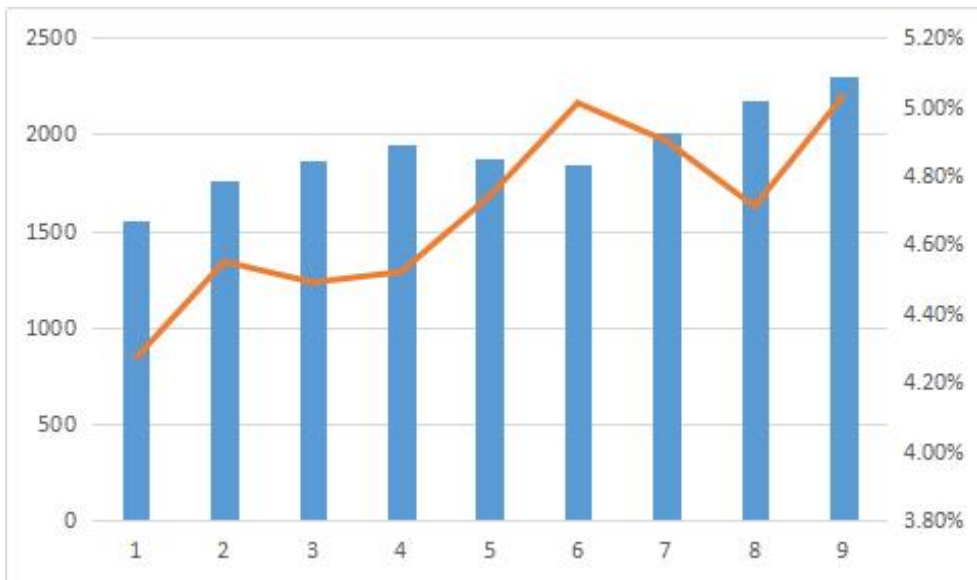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 무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물 무역도 비교적 큰 진보와 발전을 겪었다. 중국은 이미 세계 1위 농수산물 수입국이자 세계 4위 농수산물 수출국이 됐다. 중국 농수산물의 교역 상대국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시장을 포함해 주요 미국·한국·일본·유럽 등으로 국가와 지역 농수산물 무역의 종류도 다양하고 있다.

2019년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액은 2300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수출은 1.7% 감소한 791.0억 달러, 수입은 10.0% 늘어난 1509억 7000만 달러였다.

<그림 3-1>2011-2019년 중국 농산품의 수출입

단위: %



출처: 中国海关总署, 中国农业部

2011-2012년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액은 1757억6800만 달러로 수출입 화물의 4.27%를 차지했다.2014-2016년 중국 농산품 수출입액이 총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였다.2016-2018년 중국 농산품 수출입액이 총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림3-2>2015-2019년 중국 농산품의 무역적자 및 증가속도



출처: 中国农业部

<그림3-2>의하며 2019년 중국 농수산물 무역적자는 71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5% 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해 각각 30.4%, 14.0%, 26.5% 증가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1275억2500만 달러, 가공무역 65억1100만 달러, 보세물류 139억2300만 달러, 기타 무역 11억51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중국은 2019년 농수산물을 일반무역으로 654억 2400만 달러, 가공무역으로 90억 6200만 달러, 보세물류로 16억9300만 달러, 기타무역으로 23억 9300만 달러를 각각 수출했다.<sup>22)</sup>

<그림3-2>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농수산물 무역수출액은 대폭 감소하여 4940.8백만 달러에서 47.41억 달러로 감소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농수산물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2015~2017년 중국의 농수산물 무역수출액은 52.2억 달러에서 60.47억 달러로 점차 회복되었다. 2017~2018년에는 농수산물 수출액이 조금 줄어 격차가 크지 않았다. 2018~2020년 중국의 농수산물 무역수출액은 60억 달러에서 66.75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1~2020년 중국의 농수산물 무역 수입액은 비교적 평온해 큰 차이가 없다.

<표 3-1>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22) 中国海关总署

단위:백만 달러

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4940.8	4785	4741	5223.7	5220.6	5581.2	6046.6	5984.6	6146.3	6675.2
수입	18362	18717. 1	19105. 8	19307. 9	17901. 6	17666. 4	18593. 5	19903. 2	19876	20669. 4

자료: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표3-1>2011~2014년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액은 183.62억 달러에서 193.07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2016년 농수산물 수입액은 176.66억 달러까지 떨어졌다.2017~2020년 농수산물 수입 늘어 206.69억 달러에 달했다.

## 2.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무역현황

한국은 19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이 많이 없고 농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농수산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대표적인 농수산물 순수입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산업 구조도 비슷해 국민의 식습관이 비슷해 대(對)한국 수출이라는 천연덕스러운 장점이 있다. 중국 진출 초 한국은 내 수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네 번째 농수산물 수출시장이었다. 한국은 농업에 대해 높은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60%로 중국의 4배에 해당하며, 중점 보호 제품의 관세는 더욱 높으며, 이것은 우리 농산품의 대한 수출 위치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양국은 경제 무역 거래 관계가 밀접하다.2015년 한중 FTA가 체결돼 서로 전 방위로 시장을 개방한 가운데 농수산물 교역은 중요한 협정 내용이었다.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된 지 5년이 지나 일부 농수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 측은 농수산물 1588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70%가량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은 쌀, 돼지고기, 사과, 배 ,고추 ,마늘 ,양파 등 612개 세목에 집중돼 있는 농수산물 27%가량을 양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8위 품목 1362개에 대해 92.9%의 감세를 했다.

<표 2-1>에 의하면 중국의 대(對)한국 농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 2436.8

백만 달러에서 2020년 2908.2백만 달러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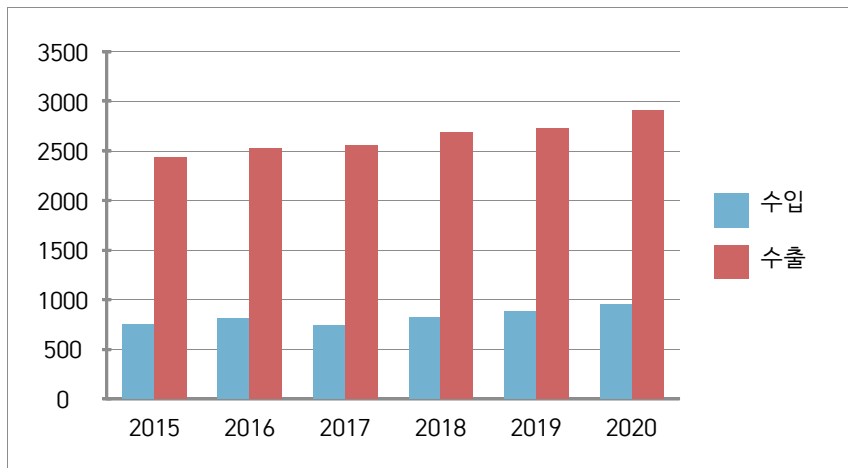
**<표 3-2> 중국 농수산물 대한국 수출입**

단위:백만 달러

년	수입	수출
2015	749.1	2439.8
2016	809.6	2532.2
2017	744	2554
2018	823.3	2689.4
2019	878.9	2721.8
2020	953.3	2908.2

자료: 한국무역협회,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그림3-3>**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한국 농수산물 수입액은 7.5 억 달러에서 8.1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또 7.44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해 9.5억 달러로 늘렸다.

**<표 3-3> 중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 구성**  
(단위:백만 달러)

HS-2 단위 품 목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1 산 동물	3	2	2	2	2	3	4	3	4	5
02 육과 식용 설육	-	-	-	0	0	-	-	-	-	-
03 어패류	1103	1304	1222	1139	1366	1305	1347	1277	1537	1388
04 낙농품·조 란·천연꿀	4	11	8	7	7	19	22	27	16	17
05 기타 동물 성 생산품	42	85	107	133	162	46	25	39	42	30
06 수목·꽃	22	24	30	35	49	54	53	49	62	72
07 채소	547	588	533	490	479	572	624	327	612	534
08 과실·견과	33	44	54	40	34	30	33	29	31	31
09 커피·차·향 신료	34	55	53	30	31	31	41	55	67	56
10 곡물	152	204	92	272	214	140	148	130	130	119
11 제분공업제 품	46	60	45	43	42	39	40	57	54	53
12 채유용 종 자, 공업용·약 용식품, 사료	249	303	390	341	400	321	292	297	303	355
13 식물성엑스	35	51	68	84	79	67	76	78	104	105
14 기타 식물 성 생산품	0.7	0.8	1	2	9	4	6	7	5	5
15 동·식물성 유지	30	25	23	21	22	19	32	37	33	37
16 육·육류 조 제품	243	299	276	264	275	268	306	326	396	383
17 당류·설탕· 과자	68	83	70	79	72	59	85	94	83	89
18 코코아 및 그 제품	2	8	9	15	30	35	57	48	40	39
19 곡물·곡분 의 조제품·빵	101	119	126	123	127	129	137	148	154	166
20 채소·과실 조제품	293	374	424	525	618	614	766	836	870	765
21 기타 조제 식품	121	130	151	137	189	175	162	167	179	178
22 음료·주류· 식초	61	15	19	33	52	56	98	106	119	129
23 조제 사료	239	273	340	453	489	165	244	245	304	306
24 담배	23	14	21	20	21	16	15	11	24	20

자료: UN Comtrade Database<sup>23)</sup>  
 러)

한중 양국 농수산물 무역의 구조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HS코드<sup>24)</sup>에 따라 농수산물이 24류로 구분하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농수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대폭 감소했고, 채소류와 가공농산물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sup>25)</sup><표 3-3>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한국의 주로 수출한 농수산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S03 어패류, 2015년 어패류 수출액은 13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의 수출농수산물 총액의 53.9%를 차지했다. 2018년 어패류의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중국이 대한국 수출농수산물 총액의 57.2%를 차지했다. HS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중국이 한국의 수출한 생산품의 수출액이 2010년 0.4억 달러, 2014년 1.6억 달러로 4배, 1.2억 달러를 증가하였다. HS10 곡물. 중국이 한국의 수출한 곡물의 수출액이 2016년 1.5억 달러로 중국이 대 한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6%에 못 미쳤다. HS13 식물성엑스. 중국이 대한국 식물성엑스의 수출액이 빠른 성장을 가져왔으며 2010년 수출액이 3500만 달러부터 2019년 1.05억 달러로 10년 동안 3배, 7000만 달러를 증가하였다. HS20 채소·과실 조제품. 중국이 대한국 채소·과실 조제품의 수출액도 빠른 성장속도를 가져왔으며 2010년 2.93억 달러부터 2018년 8.7억 달러로 9년 동안 3배, 5.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3-3>을 보면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농수산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HS03 어패류와 HS05 기타 동물성 생산품은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상품의 주요부분을 차지하였고 2015년에 이 두 가지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55.4%를 차지했다. 둘째, HS06 수목·꽃, HS13 식물성엑스, 22음료·주류·식초

23) <http://comtrade.un.org>

24)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이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를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25) 전형진·어면근·남민지,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수산물 교역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도보고, 2011, pp.138-139

등의 수출액이 중국이 대한국 농수산물 총 수출액의 차지하는 비율을 크지 않지만 급속한 발전 속도를 보였다. 셋째, HS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HS10 곡물, HS14 기타 식물성생산품, HS24 담배 등 품목은 중국의 한국 수출액이 하락추세를 보였다. 넷째, HS01 산 동물, HS03 어패류, HS08 과실·견과, HS12채유용 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HS18 코코아 및 그 제품 등 품목은 중국의 한국 수출액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 제2절. 미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무역현황

### 1. 미국 농수산물 무역현황

미국은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천혜의 조건이 있다. 본토는 북온대와 아열대 기후이며, 플로리다 남단은 열대 기후에 속하며, 알래스카는 아한대 대륙성 기후이며, 하와이는 열대 서양성 기후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강우량이 충분하고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며, 연평균 강우량은 760밀리미터입니다. 토지, 초원, 삼림 자원의 보유량은 모두 세계 상위에 위치한다. 토질이 비옥하고 해발 500미터 이하의 평원은 국토 면적의 55%를 차지하며, 농업의 기계화 경작과 규모 경영에 유리하며, 미국의 경지 면적은 국토 총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며, 대략 18817만 헥타르로 1인당 평균 0.8킬로미터에 육박한다. 미국에는 또한 영구적인 초지 2억 4천만 헥타르, 삼림과 임야 2,65억 헥타르가 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농수산물 무역대국으로서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지켜왔다. 미국 농수산물 무역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2297 억 달러에서 2018년 3223 억 달러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세계 농수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7%에서 2018년 10.2%로 다소 높아져 연평균 증가속도가 세계 평균인 0.6%포인트를 웃돌고 있다.<sup>26)</sup>

수출은 1255억 달러에서 1561억 달러로 연평균 2.2% 증가했고, 수출은 연평균 세계 평균보다 0.9%포인트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042억 달

---

26) 中国农业部

러에서 1663억 달러로 연평균 4.8% 증가했고, 수입액은 연평균 2.2%씩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무역수지 흑자는 2008년 213억 달러, 2011년 10년간 최대치인 273억 달러로 늘었다가 점차 줄었다. 2017년 26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2018년에는 102억 달러 적자로 더 확대됐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강경 무역정책을 폈지만 미국 농수산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미국 농수산물 수출 환경과 상황을 악화시켰다. 특히 2018년 미중 경제무역 마찰이 불거지면서 양측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농수산물의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세계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보다 21억 달러 늘었지만 수입은 97억 달러, 무역적자는 76억 달러 늘었고, 대중국 수출은 104억 달러 줄어든 반면 중국 수입은 8억 달러 늘었다.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는 농업무역의 균형에 뚜렷한 변화의 주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세계 농산품의 제1위 수출국이다. 수출 구조는 곡물, 축산물, 식용유씨, 면화 등 자원 집약형 제품 수출 위주다. 10년 동안 미국 농산품에서 각종 농산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변했지만, 이들 농수산물은 이 품목의 세계 수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곡물·면화·축산물·과일 수출 1위, 식용유씨 수

<표 4>에 따르면 2011- 2020년 미국 농산품 수출액은 상승 추세를 보이며, 394.3백만 달러에서 1036.8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표 3-4>미국 농수산물 수출입

단위:백만 달러

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394.3	429.8	464.3	530.3	558.1	632.5	640.5	673.8	739.1	1036.8
수입	5254.5	4330.2	3624.8	5065.7	4408.1	4349.1	4887	5849	5312.6	5401.9

자료: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표 3-4>에 따르면 2011~2013년 미국 농수산물 수입액은 5254.5백만 달러에서 3624.8백만 달러로 줄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수입액은 잠시나



마 50.65억 달러로 늘어났다. 2014~2016년 수입액을 43.49억 달러로 줄였다. 2016~2018년 수입액은 58.49억 달러로 점차 증가했다. 2018~2020년 수입액 포함, 큰 차이 없다.

## 2. 미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무역현황

미국은 세계 농산품의 제1위 수출국이다. 수출 구조는 곡물, 축산물, 식용유씨, 면화 등 자원 집약형 제품 수출 위주다. 10년 동안 미국 농산품에서 각종 농산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변했지만, 이들 농수산물은 이 품목의 세계 수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곡물·면화·축산물·과일 수출 1위, 식용유씨 수출 2위다. 농수산물 수출 추이를 보면 축산물·과일·음료·면화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은 수입대국이기도 하다. 수입은 음료수·수산물·과일·채소 등 노동집약적 제품이 주를 이룬다. 음료·수산물·과일·채소 수입액이 세계 1위, 설탕 수입액이 2위, 축산물 수입액이 3위였다. 농수산물 수입 추이를 보면 곡물 식용유 씨 목화 등 미국의 강세 품목 수입 감소세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10년 새 증가세를 보였다.

<표 3-5>에 의하면 미국의 대(對)한국 농수산물 수입액은 2015년 558.1백만 달러에서 2020년 1036.8백만 달러로 늘었다.

**<표 3-5>미국 농수산물 대한민국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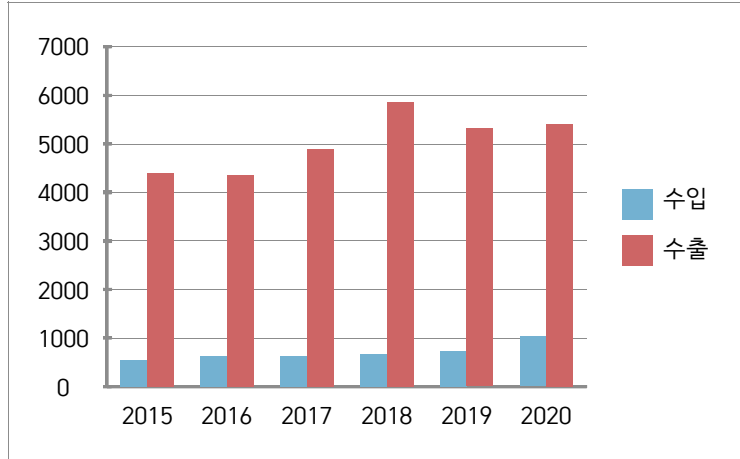
단위:백만 달러

년	수입	수출
2015	558.1	4408.1
2016	632.5	4349.1
2017	640.5	4887
2018	673.8	5849
2019	739.1	5312.6

2020	1036.8	5401.9
------	--------	--------

<그림3-4>

(단위:백만 달러)



2015년 미국 농산품 대한국 수출액은 4408.1백만 달러에서 5849만 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312.6백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2020년은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다.

<표 3-6>미국 농수산물의 대한국 수출 구성

(단위: 백만 달러)

HS-2 단위 품목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1 산 동물	12	24	21	24	25	18	24	25	23	25
02 육과 식용 설육	782	1302	1074	944	1369	1268	1433	1687	2397	2414
03 어패류	290	373	407	422	390	459	486	450	493	512
04 낙농품·조란·천연꿀	118	202	203	276	386	280	203	273	272	297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4	20	29	28	28	25	25	36	52	49

06 수목·꽃	1	1	1	1	2	1	1	2	2	2
07 채소	17	17	30	23	26	25	23	33	36	31
08 과실·견과	371	494	680	693	750	744	713	823	802	715
09 커피·차·향 신료	26	38	41	46	41	40	63	77	86	88
10 곡물	1847	2428	1324	707	1522	1110	1236	1139	1833	810
11 제분공업제 품	12	11	9	10	12	10	10	10	9	9
12 채유용 종 자, 공업용·약 용식물, 사료	560	534	696	608	676	561	534	689	670	759
13 식물성엑스	22	23	25	27	24	29	28	24	24	25
14 기타 식물 성 생산품	0.2	2	4	4	2	2	2	0.2	3	0.5
15 동·식물성 유지	83	67	38	63	53	66	100	240	243	310
16 육·육류 조 제품	31	34	38	45	53	58	57	52	57	54
17 당류·설탕· 과자	28	42	43	47	57	49	51	42	44	40
18 코코아 및 그 제품	60	74	77	84	81	69	70	71	65	73
19 곡물·곡분 의 조제품·빵	44	58	64	82	90	85	83	81	73	81
20 채소·과실 조제품	148	149	221	229	252	293	237	238	237	237
21 기타 조제 식료품	196	281	275	322	338	371	435	382	431	595
22음료·주류· 식초	45	53	81	81	155	181	135	165	223	295
23 조제사료	292	248	324	282	410	282	341	305	413	446
24 담배	22	22	37	38	34	29	44	45	27	39

<표 6>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한국의 주로 수출한 농  
 수산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S02 육과 식용 설육, 2015년 육과 식용설육

수출액은 12.7억 달러로 미국이 한국의 수출농수산물 총액의 28.8%를 차지했다. 2019년 육과 식용설육의 수출액은 24억 달러로 미국이 대한국 수출농수산물 총액의 54.8%를 차지했다. HS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미국이 한국의 수출한 생산품의 수출액이 2010년 1400만달러, 2018년 5200만 달러로 3.7배, 3800만 달러를 증가하였다. HS07 채소. 미국이 한국의 수출한 채소의 수출액이 2015년 2500만 달러로 미국이 대한국 농수산물 수출액의 0.6%에 못 미쳤다. HS09 커피·차·향신료, 미국이 대한국 식물성엑스의 수출액이 빠른 성장을 가져왔으며 2010년 수출액이 2600만 달러부터 2019년 8800만 달러로 10년 동안 3.4배, 6200만 달러를 증가하였다. 15 동·식물성, 미국이 대한국 동·식물성의 수출액도 빠른 성장속도를 가져왔으며 2010년 8300 만 달러부터 2019년 3.1억 달러로 10년 동안 3.9배, 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3-6>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농수산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HS02 육과 식용 설육과 HS05 기타 동물성 생산품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상품의 주요부분을 차지하였고 2019년에 이 두 가지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55.9%를 차지했다. 둘째, HS04 낙농품·조란·천연꿀, HS07 채소, HS13 식물성엑스, HS16육·육류 조제품, HS19 곡물·곡분의 조제품·빵 등의 수출액이 미국이 대한국 농수산물 총 수출액의 차지하는 비율을 크지 않지만 급속한 발전 속도를 보였다. 셋째, HS11제분공업제품, HS14 기타 식물성생산품, HS 18코코아 및 그 제품 HS24 담배 등 품목은 미국의 한국 수출액이 하락추세를 보였다. 넷째, HS01 산 동물, HS06 수목. 꽃, HS07 채소, HS11제분공업제품, HS17 당류. 설탕. 과자 등 품목은 미국의 한국 수출액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 제4장 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중국과 미국 농산품의 대한국 경쟁력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최근 10년간 농수산물 분야에 수출입 10개 HS코드 4단위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선택하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중국 관련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구하여 부분 세계 관련 데이터는 UN Comtrade에서 구하였다. 구한 데이터를 MS, TSI, CAC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중 양국의 농수산물 무역 상위 5위 품목은 비식용 원료(연료 제외), 어류, 곡물 및 곡물 제품, 채소 및 과일, 가축 사료이다. 한미 농수산물 교역 상위 5개 품목은 비식용 원료(연료 제외), 곡물 및 곡물제품, 고기 및 육 제품, 생선, 채소 및 과일 등이다.<sup>27)</sup>

<표 4-1>한국의 대중국과 대미국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2020년 기준으로  
 (단위: 천 달러)

HS2단위	HS4단위	한-중		한-미			수입 비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3	0301	3	132,542	11,361	6,982	○	5%
	0302	7,565	3,746	2,534	33	○	1%
	0303	156,557	234,503	30,944	92,463	○	39%
	0304	11,079	59,062	20,205	88,971	○	151%
	0305	1,342	12,950	15,327	54	○	0%
	0306	56,862	145,390	5,426	14,439	○	10%
	0307	23,763	423,248	19,292	8,547	○	2%
	0308	7,843	6,038	868	1,002	○	17%
	0309	-	-	-	-	X	0%

07	0701	0	9,279	43	0	△	0%
	0702	-	-	-	-	X	0%
	0703	8,851	118	0	15,450	△	13093%
	0704	25	219	0	21,861	△	9982%
	0705	89	4,520	0	10,579	△	234%

27) 念红艳.《中韩农产品出口贸易现状分析》, 2019

	0706	3,279	0	1	72,439	△	0%
	0707	-	-	-	-	X	0%
	0708	0	0	-	-	X	0%
	0709	12,536	252	64	31,148	○	12360%

10	1001	0	3	0	379,554	△	12651800%
	1002	-	-	0	4,275	X	0%
	1003	47	0	73	806	△	0%
	1004	0	17	55	809	△	4759%
	1005	44	77	5	640,369	○	831648%
	1006	42	167,878	1,766	137,734	○	82%
	1007	0	2,248	18	515	△	23%
	1008	42	9,959	152	2,711	○	27%
	1009	-	-	-	-	X	

12	1201	157	38,939	14	304,232	○	781%
	1202	30	4,147	0	335	△	8%
	1203	-	-	0	5	X	0%
	1204	0	58	0	154	△	266%
	1205	0	81	0	1	△	1%
	1206	0	622	0	1,574	△	253%
	1207	53	116,900	216	34,897	○	30%
	1208	0	37,087	102	401	△	1%
	1209	14,503	25,792	8,638	30,877	○	120%

20	2001	469	18,157	2,804	2,266	○	12%
	2002	0	12,281	0	12,375	△	101%
	2003	5	16,326	176	3	○	0%
	2004	18	7,322	240	116,932	○	1597%
	2005	1,716	244,306	29,974	14,472	○	6%
	2006	87	907	590	22	○	2%
	2007	584	6,872	251	3,809	○	55%
	2008	121,388	104,710	153,928	57,215	○	55%
	2009	24,776	6,883	2,268	53,495	○	777%

\*○: 수출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이다.

\*△:수출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X: 수출입 금액이 0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입비율이 10%-90%인 10개 품목을 선택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한다.

<표 4-2>품목명

HS 4단위	품명
0303	냉동어류
0306	갑각류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7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에 근거로 작성

## 제1절 MS (시장점유율)

$$MS_{ik}^j = \frac{X_{ik}^j}{M_k^j} \times 100$$

$X_{ik}^j$ : I국의 k국에 대한 j품목 수출

$M_k^j$ : k국의 j품목 총수입

시장 점유율(市場占有率)은 경쟁 시장에서 어떠한 상품의 총 판매량 가운데 한 기업의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곧, 특정 산업, 가령 선철 등의 제품시장에서 취급되는 전 거래량 중에서 한 기업이 정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마켓 셰어(market share), 시장 점거율이라는 용어도 통용한다. 칼튼(Carlton O'Neal)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란 경영전략론과 마케팅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의 일부, 또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세분화의 일부를 가리킨다.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시장 판매 소득 가운데 한 기업의 시장 판매 소득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소득뿐 아니라 판매 물건의 양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 크기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 4-3>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MS

HS 코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03	33.35 %	32.02 %	27.96 %	31.25 %	29.13 %	28.69 %	21.98 %	23.37 %	22.75 %	20.24 %
0306	26.19 %	29.41 %	25.37 %	18.24 %	21.58 %	19.14 %	14.72 %	14.77 %	15.57 %	14.61 %
0308	0.00 %	48.16 %	53.41 %	40.02 %	45.90 %	48.96 %	52.51 %	52.46 %	37.03 %	46.40 %
1006	52.81 %	41.84 %	52.93 %	65.48 %	38.92 %	52.28 %	40.29 %	40.40 %	40.34 %	40.94 %
1007	76.22 %	95.18 %	82.73 %	82.74 %	77.60 %	75.35 %	84.59 %	13.46 %	66.65 %	77.64 %
1008	80.16 %	81.46 %	96.76 %	84.90 %	68.16 %	62.98 %	76.74 %	71.92 %	69.21 %	71.48 %
1207	41.21 %	47.50 %	43.05 %	41.97 %	41.83 %	33.22 %	46.76 %	51.63 %	53.79 %	52.50 %
2001	49.53 %	77.50 %	87.76 %	49.69 %	54.23 %	54.30 %	58.44 %	57.72 %	53.05 %	52.45 %
2007	24.94 %	38.63 %	31.28 %	31.41 %	31.04 %	28.82 %	27.96 %	27.12 %	32.64 %	24.31 %
2008	56.84 %	54.96 %	55.73 %	58.80 %	44.98 %	40.29 %	40.22 %	35.64 %	34.33 %	34.55 %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표 4-3>의하여 HS코드 0303,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33.35%에서 27.96%로 5.5%에 하락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점유율은 31.25%에서 21.98%로 3년 동안 10% 하락했다. HS코드 0306,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시장점유율은 29.41%에서 18.24%로 11%에 하락했다.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시장점유율은 21.58%에서 14.72%로 7%에 하락했다. HS코드 0308,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시장점유율은 0.00%에서 53.41%로 53.41%에 증가했다.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동안 시장점유율은 52.46%에서 37.03%로 15%에 하락했다. HS코드 1006,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장점유율은 41.84%에서 65.48%로 2년 동안 24%에 증가

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점유율은 65.48%에서 38.92%로 1년 동안 26%에 하락했다. HS코드 1007,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76.22%에 95.18%로 19%에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84.59%에 13.46%로 71%에 하락했다. HS코드 1008,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점유율은 80.16%에서 96.76%로 3년 동안 16.5%에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장점유율은 96.76%에서 62.98%로 3년 동안 34%에 하락했다. HS코드 1207,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장점유율은 41.21%에서 43.05%로 1년 동안 1.8%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장점유율은 33.22%에서 53.79%로 4년 동안 20.5% 증가했다. HS코드 2001,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점유율은 51.4%에서 25%로 4년 동안 26.4%에 하락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25%에서 63.4%로 38.4%에 증가했다. HS코드 2007,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장점유율은 24.94%에서 38.63%로 2년 동안 14%에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27.12%에서 32.64%로 5.5%에 증가했다. HS코드 2008,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장점유율은 58.80%에서 34.33%로 6년 동안 24%에 하락했다.

<표 4-4>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MS

HS 코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03	12.17%	13.77%	16.74%	15.11%	18.78%	18.36%	15.48%	18.51%	21.54%	18.88%
0306	1.03%	2.32%	4.04%	3.17%	2.43%	2.58%	2.17%	1.88%	1.53%	0.96%
0308	0.00%	5.74%	16.97%	13.28%	12.87%	5.54%	11.01%	8.32%	2.81%	5.84%
1006	28.63%	29.38%	24.91%	10.73%	43.57%	45.41%	34.57%	30.65%	49.26%	43.09%
1007	30.6	28.06	28.23	55.63	21.86	56.29	28.82	98.46	98.08	45.11

	8%	%	%	%	%	%	%	%	%	%
1008	4.61 %	5.74 %	10.14 %	31.52 %	20.43 %	15.27 %	18.52 %	26.39 %	23.94 %	18.34 %
1207	5.93 %	2.81 %	5.07%	7.71%	6.56%	5.15%	16.39 %	15.96 %	12.66 %	14.17 %
2001	20.2 6%	19.91 %	18.34 %	13.55 %	8.70%	8.24%	7.41%	6.37%	6.32%	6.55%
2007	10.9 7%	17.54 %	17.16 %	17.46 %	37.41 %	38.50 %	13.11 %	11.11 %	11.50 %	9.28%
2008	8.68 %	10.91 %	10.74 %	13.45 %	24.76 %	12.84 %	13.80 %	14.28 %	12.91 %	13.99 %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표 4-4>의하여 HS코드0303,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12.17%에서 18.78%로 6.6%에 증가했다. HS코드0306,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1.03%에서 4.04%로 3.01%에 증가했다. HS코드 0308,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점유율을 1년 동안 0.00%에서 16.97%로 16.97%에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16.97%에서 5.54%로 11%에 하락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5.54%에서 11.01%로 5.5%에 증가했다. HS코드 1006,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28.63%에서 10.73%로 4년 동안 18% 하락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10.73%에서 45.41%로 35%에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30.65%에서 49.26%로 1년 동안 19% 증가했다. 1년 동안 시장점유율을 1.6배 증가했다. HS코드 1007,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3년 동안 28.06%에서 55.63%로 27.5%에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점유율을 1년 동안 28.82%에서 98.46%로 69.6%에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56.28%에서 2

8.82%로 27%에 하락했다. HS코드1008,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4.61%에서 31.52로 27%에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31.52%에서 15.27%로 16%에 하락했다. HS코드1207,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간 시장점유율은 5.15%에서 16.39%로 11.2%에 증가했다. HS코드 2001,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20.26%에서 6.32%로 14%에 하락했다. HS코드 2007,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10.97%에서 38.50%로 27.6%에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38.50%에서 11.11%로 27%에 하락했다. HS코드 2008,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8.68%에서 24.76%로 16%에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시장점유율은 24.76%에서 12.84%로 11.9%에 하락했다.

<표 4-5>중국과 미국의 대한민국 MS 비교

품목	0303	0306	0308	1006	1007	1008	1207	2001	2007	2008
중국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미국										

<표 4-3>,<표 4-4>와 <표 4-5>의하여 HS코드 0303,HS코드 0306,HS코드 0308,HS코드 1006,HS코드 1007,HS코드 1008,HS코드 1207,HS코드 2001,HS코드 2007,HS코드 2008,이 10개 품목은 중국 농수산물의 시장 점유율은 더 크다.

## 제2절 TSI (무역특화지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무역특화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 상태를 말한다.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이다. 또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이다. 수출물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국제경쟁력 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SI_{ab} = \frac{(X_{ab}^i - I_{ab}^i)}{(X_{ab}^i + I_{ab}^i)}$$

$X_{ab}^i$  : a국의 b국에 대한 i품목 수출

$I_{ab}^i$  : a국의 b국에 대한 i품목 수입

<표 4-6>중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TSI

HS코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03	0.696	0.703	0.654	0.808	0.763	0.738	0.653	0.743	0.534	0.453
0306	0.919	0.885	0.924	0.957	0.981	0.937	0.966	0.975	0.965	0.961
0308	0.000	0.894	0.132	0.561	0.935	0.936	0.942	0.820	0.443	0.678
1006	0.994	0.999	1.000	1.000	0.999	0.990	0.997	0.999	1.000	0.999
1007	0.965	1.000	0.9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8	1.000	0.991	1.000	1.000	1.000	1.000	0.994	1.000	0.999	0.991
1207	1.000	0.988	0.995	0.996	0.997	0.996	0.991	0.997	0.999	0.999

2001	0.999	0.998	0.997	0.996	0.998	0.999	1.000	1.000	0.999	0.999
2007	0.932	0.895	0.882	0.714	0.619	0.814	0.879	0.676	0.775	0.886
2008	0.789	0.732	0.619	0.579	0.304	0.226	0.898	0.294	0.267	0.247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표 4-6>의하여 HS코드 0303,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 품목은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았다. HS코드 0306 ,2011-2020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 품목의 농수산물은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았다. HS코드 0308,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는 0.894에 증가했다.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도 8에 떨어졌다. HS코드 1006,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HS코드 1007,2011-2020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무역특화지수가 최고에 달했다. HS코드 1008,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HS코드 1207,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HS코드 2001,이 품목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이 품목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았다. HS코드 1207,이 품목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이 품목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았다. HS코드 2008,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는 0.4에 떨어졌다.

<표 4-7>미국 농수산물의 대한민국 TSI

HS코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03	0.699	0.669	0.694	0.744	0.765	0.692	0.655	0.675	0.700	0.700

0306	0.408	0.671	0.709	0.725	0.590	0.619	0.650	0.654	0.402	0.452
0308	0.000	0.355	0.821	0.789	0.800	0.224	0.829	0.712	0.303	0.669
1006	0.993	0.991	0.996	0.978	0.984	0.979	0.982	0.980	0.984	0.978
1007	0.998	0.998	0.993	0.997	0.932	0.992	0.986	0.999	0.994	0.971
1008	0.844	0.940	0.874	0.983	0.879	0.875	0.944	0.978	0.958	0.948
1207	0.997	0.992	0.993	0.993	0.991	0.978	0.994	0.987	0.990	0.993
2001	0.605	0.667	0.677	0.583	0.457	0.466	0.409	0.191	0.149	0.071
2007	0.863	0.939	0.920	0.895	0.980	0.992	0.979	0.975	0.950	0.903
2008	-0.224	-0.246	-0.376	-0.229	0.037	0.693	-0.307	-0.346	-0.438	-0.857

출처: 관세청

<표 4-7>의하여 HS코드 0303,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는 0.07에 증가했다.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는 0.11에 떨어졌다. HS코드 0306,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무역적자는 있다. 이 품목의 농수산물은 경쟁력이 있다. HS코드 0308,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0.82에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0.4에 떨어졌다. HS코드 1006,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HS코드 1007,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무역적자는 있다. 이 품목의 농수산물은 경쟁력이 있다. HS코드 1008,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HS코드 1207,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HS코드 2001,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0.

49에 떨어졌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 특화지수가 무역적자는 없다. HS코드 2007,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특화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HS코드 2008,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무역특화지수가 거의 무역적자는 없다. 이 품목의 농수산물은 경쟁력이 없다.

<표4-8> 중국과 미국의 대한민국 TSI비교

품목	0303	0306	0308	1006	1007	1008	1207	2001	2007	2008
중국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미국	우위								우위	

<표 4-6>, <표 4-7>와 <표 4-8>의하여 HS코드 0301, HS코드 2007,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산 농수산물의 한국 경쟁력은 미국의 한국 경쟁력보다 컸다. 중국 이 품목은 한국 수입액 수출액보다 많다. HS코드 0308, HS코드 1006, HS코드 1007, HS코드 1008, HS코드 1207, HS코드 2001, 중국산 농수산물의 한국 경쟁력은 미국의 한국 경쟁력보다 컸다. 이 6개 품목은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경쟁력과 미국의 한국 시장 경쟁력은 큰 차이가 없다. HS코드 0308, HS코드 2008,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이 품목의 한국 시장 경쟁력은 미국보다 크다. HS코드 2008, 중국산 농수산물의 한국 경쟁력은 미국의 한국 경쟁력보다 컸다.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10년 동안 미국보다 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경쟁력이 없다. 미국의 이 품목의 수입액은 수출보다 적다.

### 제3절 CAC (국별비교우위)

국별비교우위지수(CAC)는 교역국별 비교우위 지수로 1보다 클 경우 수출



국의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CAC_{ab}^k = \frac{(X_{ic}^k / I_{ab}^i)}{(X_i^k / X_i)}$$

$X_{ic}^k$  : i국의 c국에 대한 k품목 수출

$I_{ab}^i$  : i국의 c국에 대한 수출

$X_i^k$  : i국의 k품목 수출

$X_i$  : i국의 수출

<표 4-9> 중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CAC

HS 코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03	5.36	4.37	3.35	3.32	3.39	3.23	2.44	2.62	2.32	2.33
0306	2.36	2.68	2.05	1.64	2.27	2.16	2.24	3.13	4.08	4.02
0308	0.00	2.01	1.14	0.87	1.31	2.59	3.62	4.33	3.92	5.39
1006	12.37	6.07	15.06	12.26	10.86	8.80	4.46	3.12	2.35	3.86
1007	2.44	4.91	8.41	8.77	8.51	2.67	2.00	1.64	1.99	5.41
1008	2.54	3.57	5.26	5.45	4.61	5.36	5.26	5.52	4.62	7.46
1207	15.10	11.08	12.64	11.44	10.13	8.80	8.62	8.96	10.38	11.53
2001	2.18	3.16	4.55	1.75	2.00	2.65	2.93	3.43	3.09	3.15

2007	0.86	1.56	1.65	1.82	1.98	2.02	1.95	1.69	2.66	1.87
2008	1.27	1.30	1.44	1.70	1.21	1.19	1.02	1.04	1.12	1.14

출처: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표 4-9>에 의하여 HS 0303,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대한국 비교우위지수가 비교적 평온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이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는 3.39에서 2.44로 3년 동안 1에 하락했다. HS 0306,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대한국 비교우위가 비교적 평온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이 품목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2.68에서 1.64로 3년 동안 1.14 하락했다. HS 0308,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 1006,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이 품목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10.27에서 6.07로 1년 동안 4.2에 하락했다. HS 1007,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이 품목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2.44에서 8.77로 4년 동안 6.3에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이 품목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8.51에서 1.64로 1년 동안 6.9에 하락했다. HS 1008,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거의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이 품목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2.54에서 7.46로 10년 동안 5에 증가했다. HS 1207,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이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는 12.64에서 8.62로 5년 동안 4에 하락했다. HS 2001,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이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2.18에서 6.86로 5년 동안 4배 증가했다. HS 2007,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거의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있다. HS 2008,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표 4-10>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 CAC

HS코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03	3.08	3.38	3.58	0.34	4.20	4.58	2.99	3.77	4.29	4.24
0306	0.23	0.54	0.93	0.08	0.59	0.68	0.70	0.60	0.56	0.40
0308	0.00	0.74	1.89	0.23	2.43	1.13	2.56	2.06	1.09	2.46
1006	8.80	3.76	8.85	0.24	9.31	8.66	6.39	5.32	7.25	8.40
1007	0.04	0.07	0.07	0.00	0.01	0.03	0.02	0.42	0.10	0.03
1008	0.22	0.24	0.51	0.14	0.85	0.65	0.63	0.79	0.59	0.66
1207	4.24	2.54	3.38	0.45	3.04	2.17	4.42	3.81	3.93	4.44
2001	0.54	0.48	0.46	0.45	0.28	0.37	0.26	0.16	0.20	0.27
2007	0.78	1.37	1.68	0.14	2.52	2.58	0.98	0.83	0.80	0.60
2008	0.63	0.83	0.80	0.11	1.43	0.89	0.93	0.88	0.82	0.90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표 4-10>에 의하여 HS 0303,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이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0.34에서 4.20로 1년 동안 3.9배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이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4.58에서 2.99로 1년 동안 1.6에 하락했다. HS 0306,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이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2.68에서 1.64로 3년 동안 1에 하락했다. HS 0308,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 1006,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이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지수는 0.06에서 2.42로 1년 동안 2.36에 증가했다. HS 1007,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 1008,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 1207,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 2001,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 2007, HS 1207,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 2008,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대부분 1보다 적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다.

<표4-11> 중국과 미국의 대한국 CAC 비교

품목	0303	0306	0308	1006	1007	1008	1207	2001	2007	2008
중국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우위
미국	우위									

<표 4-9>, <표 4-10>와 <표 4-11>에 의하여 HS코드 0303, 미국은 이 품목

의 한국 시장 비교우위가 중국보다 크다. HS코드 0306,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미국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적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다. 중국은 이 품목의 한국시장 비교우위가 미국보다 크다. HS코드 0308,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코드 1006,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2013년,2018년,2019년만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적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지만 중국의 이들 품목의 한국시장 비교우위가 미국보다 크다. HS코드 1007,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의 비교우위 지수가 전체적으로 미국보다 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적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없다. HS코드 1008,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의 비교우위 지수가 전체적으로 미국보다 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적어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도 없다. HS코드 1207,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코드 2001,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코드 2007,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HS코드 2008,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이 품목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교우위지수가 모두 1보다 커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표 4-12>경쟁력 분석

종합	0303	0306	0308	1006	1007	1007	1207	2001	2007	2008
MS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TSI	미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미국 우위	중국 우위
CAC	미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중국 우위

시장점유율로 보면 10개 품목 모두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다.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두 개 뿐이다. 국가별 비교우위를 보면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1개뿐이다. 품목별에 따르면 세 가지 분석 방법 중 두 가지 중국 모두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다. HS코드 0303, HS코드 2007. 중국은 비교적 우위가 가지고 있다. 세 가지 분석 방법 중 두 가지 중국 모두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다. 그래서 HS코드 0306, HS코드 0308, HS코드 1006, HS코드 1007, HS코드 1008, HS코드 1207, HS코드 2001, HS코드 2008, 한국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절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다.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2011-2020년 한국 농산품의 수출입에 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국가별 비교우위지수 등 세 개의 다른 시각에서 중미 양국의 농산품의 한국시장 경쟁력 상황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제3장 의하여 HS 01 산 동물, HS 02육과 실용설유, HS 04낙농품 .조란. 촌연꿀, HS 10 곡물, HS 22 음료. 주류. 식초, HS 23 조제사료, 미국 농수산물물의 한국시장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을 크다. HS 03 어패류, HS 07 채소, HS 23 조제사료,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시장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을 크다. 전반적으로 미국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경쟁력은 대부분 중국보다 크다.

제4장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지표에서 볼 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수산물, 곡물류 제품 및 야채수류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중국에 비해 수산물, 커피차 등이 한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국가별 비교우위 지수는 미국이 어류 수산물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커피와 차는 한국시장에서 CAC지수가 중국의 같은 종류의 제품보다 크고 대부분 제품의 비교우위 지수치는 미국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중국은 총 수출액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러, 한국의 최대 농수산물 수입원이 되었다. 종합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분석 방법 중 두 가지 중국 모두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다. HS코드 0303, HS코드 2007. 중국은 비교적 우위가 가지고 있다. 세 가지 분석 방법 중 두 가지 중국 모두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다. 그래서 HS코드 0306, HS코드 0308, HS코드 1006, HS코드 1007, HS코드 1008, HS코드 1207, HS코드 2001, HS코드 2008, 한국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절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다.

품목별 경쟁력 유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비교적 우위에 있는 품목은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 그리고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다. 경쟁 우위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시장 가격을 낮추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결론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성 건의를 제기한다.

첫째,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주도적인 생산품을 육성합니다. 본문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이미 한국 최대의 농수산물 수입원국의 하나가 되었지만, 중국의 모든 농수산품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어류수산물 등 극소수 제품만 한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뚜렷해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비교우위 원리에 따라 산업 또는 무역우대정책을 세우고, 중국의 비교우위가 뚜렷한 수산 및 채소와 과일 등의 업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공고히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본 논문의 연구결과, 중국의 수산물, 채소 과일 등 노동집약적인 농수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싼 인건비 덕분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노동비용에 의존하여 저가경쟁을 하는 전략은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규모화 생산을 실시하여 국제 브랜드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중국 농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근본 방법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 지대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낮은 무역장벽을 낮추다. 일본과 중국, 최근 몇 년간 한국. 지금 적극적으로 자유 무역 지대 협상한중일 자유무역지구가 만들어지면 15억 명이 넘는 거대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 일본과 중국 모두 아시아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국이다.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지만 3국 간 교역은 전체 대외교역의 11% 안팎에 불과해 더 늘어날 여지가 크다. 최근 3국 무역구조가 새롭게 변하고 산업 내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만약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된다면 중국은 다른 국가의 농산품에 대해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王声扬, 《韩FTA对中韩农产品进出口贸易影响及相关对策》, 2015
- 苏格, 彭欢, 吴国方《世界农产品贸易与中国农产品贸易现状分析》, 2019.10
- 唐杰 等《全球农业发展现状和趋势》, 2020
- David Hallam, 《中国农业信息》, 2008, 007卷
- <https://www.ixueshu.com>
- 中国社会科学网 <http://m.cssn.cn>
- 《商品与质量学术观察》, 2011,12期
- 郝华, 林秀梅, “경제 시각”, 제000권 제004호, 2012, P79-80
- 데이비드 리카도, 권기철 역,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1817
- 어명근,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수산물 교역구조”, 2003
- 박준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pp.379 - 381
- 김승규,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대책”, 2008
- 유병서, 「농업발전론」, 1993,08
- 안병일, 「FTA 영향분석에 대한 표준 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 2009. 3

임형백,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제1호, 2007, P29 - 57

최세균, 박시환,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2001, 11

남국현·이천국, 한·중·일 농수산물 경쟁력과 한·중 FTA 농수산물 교역량 증가 효과, 2018, P71-83

모수원·심재희, 「한국 농수산물의 대중 경쟁력」, 『산업경제연구』, Vol. 22 No.2, 2009, pp 621-635

<http://comtrade.un.org>

전형진·어면근·남민지,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수산물 교역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도보고, 2011, pp. 138-139

念红艳, 《中韩农产品出口贸易现状分析》, 2019